

<2012년 10월 31일 <수요말씀>

바둑장기

혹시 바둑 둘 줄 아세요??

바둑과 둘때 단순하게 두게 되면 바로 상대가 따버리잖아요.

상대가 어디에 둘 것을 생각하지 않고, 내가 여기에다 두면 상대는 어디에 두겠지 생각하며 자기 것만 생각하고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

이처럼 ‘인생’도 자기라는 몸이 이 바둑판의 바둑알 같다는 거예요
자기라는 바둑을 어디다가 뒤편할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행하며 살지 않으면
바둑을 단순하게 뒤편 상대가 따먹는 것처럼 단순하게 끝나요 이와같이 생각을 단순한게 하면 인생도 그리될 수 있어요

그렇다면 단순한 생각이란 무엇일까요? 한가지만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?

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잘 안되요 바로 생각의 차이예요

바둑을 못하는 사람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는 방법이 가장 빠르죠
이와같이 내 생각의 수준을 높이고 단순하게 살지 않으려면
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한테 배우면 되요 이왕 배운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한테 배우고 싶죠?
그 사람은 아쉽게도 직접 만날 수 없지만 그가 쓴 책이 있어요
바로 바이블 이에요
바이블은 지혜로운 사람도 나오고 반대로 무지하고 단순한 사람도 나와서 그로인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아요
바이블 통해 성공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를들어 미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대통령 링컨도 그 중 한 사람이예요
이런 성경 멘토링 한번 들어볼래요??